

Written by DO HYUN KIM



THE ART OF PREPOSITION

NYU 유학생



New Media Learning

Chapter 1

“21세기 문맹 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 앨빈 토플러 (1929~2016)

이 책은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제2 외국어 습득이론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뉴미디어 학습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색상, 크기, 위치, 그리고 페이지당 정보의 양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는 한글 뜻뿐 아니라 감정, 소리, 색상, 표정, 맛까지 함께 입체적으로 입력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저만의 방식으로 녹여내 만든 새로운 “류”의 학습 방식입니다. 본인에게 새로운 방식의 자료가 맞는지 확인 후 사용을 권합니다.

Chapter 1: Introduction

두 번째 책을 시작하며.....	5
왜 우리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못할까?.....	15
어떻게 전치사를 이용할 것인가?.....	26

Chapter 2: 영어 습득의 시작

Go	37
Look	81
Drop	115
Turn	134
Break	161
Drag	179
Take	205
Put	241

Chapter 3: 적용

Applying Lv1	272
Applying Lv2.....	288
두 번째 책을 마치며	303

두 번째 책을
시작하며

책 제목: “*THE ART OF PREPOSITION*”

“전치사의 아름다움”

목적: 전치사가 영어에서 갖는 역할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한 책

“NYU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 나이, 직업의 구독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원하는 만큼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그 답답함을 주는 “원흉” 중의 하나는 바로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중에서도 “전치사” 사용은 모르는 것을 넘어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어휘에서 전치사가 주는 혜택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전치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휘력을 향상 시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저는 “구문 동사(phrase verbs)”의 존재 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원어민은 매일, 매 순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문 동사죠. 구문 동사란 두 개 이상의 단어, “동사 + 전치사”를 합쳐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ook after, take over” 같은 표현이죠. 이미 알고 있는 전치사와 동사를 조합하여 어휘력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문 동사는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치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구문 동사가 주는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문장을 그림 그리듯 입체적 설명이 가능하고
2.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며,
3. 아는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문 동사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가져가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은 총 3개의 chapters로 구성되었습니다.

Chapter 1에선 “왜, 그리고 어떻게” 구문 동사를 배우며 어휘를 확장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Chapter 2에선 실제로 40개의 구문 동사를 배워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Chapter 3에선 배운 내용을 아마존 베스트 셀러를 읽는 데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휘 책”을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그리고 즐겁게 만드는 도구로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책을 만들고 싶었죠.

“이쁘기만 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겉모습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워야 한다.”

단순히 한글 뜻과 예문 하나를 적어 놓고는 어휘 책인 척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은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여 실제로 쓸 수 없는 지식의 “양만” 늘려놓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어휘 책과는 달리, 많은 단어를 담았다고 자랑스러워 하거나 선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가능한 핵심만 남기고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겨진 내용에 더욱 집중되도록 했죠.

이 책에 선정된 단어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분야 전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50개의 구문 동사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인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 200개를 추려 냈죠.

200개의 단어는 다시 하나하나 리서치를 통해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베스트 셀러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70개로 줄여나갔습니다. 이렇게 남은 70개 단어 중에 전치사의 느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어만 약 40개를 최종적으로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향수의 에센스를 만들 듯 담아내어. 한번 배우고 사용하면, 그 향이 진하여 오래 기억에 남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휘 공부에 지겹다는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어휘 책을 만들고자 했죠.

Apple의 부사장 조너선 아이브의 말처럼 최고의 디자인은 어디를 디자인했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이 제품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어 학습 디자인은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학습자는 자신이 영어로 “즐겁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영어로 좋아하는 것을 감싸는 거죠. 그리고 영어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스토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 소개되는 모든 문장은 다양한 토픽 속에서 그 스토리와 배경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마치, 소설책이나 전문 잡지를 보듯이 읽을 수 있게 디자인했죠.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단순히 전치사의 규칙을, 구문 동사의 한글 뜻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outputs) 것을 기준으로 입력(inputs)할 거라는 거죠. 즉, 정보 뿐 아니라 감정 전달자로서 영어를 사용할 겁니다.

실제 영어를 사용하려면 단어의 뜻뿐 아니라 소리, 표정, 맛, 상황, 모양 등에 대한 비언어적(non-linguistic information) 정보가 반드시 함께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력을 저는 “입체적인 입력”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영어에 감정이 실리고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죠.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영어 습득”(acquisition)이 가능합니다. 즉, 감정을 바로 영어에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문으로서가 아닌 영어를 언어로써 마침내 사용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연결 작업은 일시적인 기간을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확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어도 영어도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 끝낸다는 말은 없습니다. 언어를 끝냈다는 건 본인의 성장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끝낸다는 말은 마케팅이나 사용하는 bullshits, 헛소리죠.

언어는 3개월 안에 원수를 암살하듯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처단해야 할 적이 아니라 곁에 두고 오래 볼 “친구처럼” 대해야 잘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영어가 평생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즐겁게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영어 학습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어 공부의 시작은 문제집을 푸는 것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영어를 하는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이용하는 겁니다.

확실 한건 우리는 영어 점수를 높이려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 책을 즐겁게 읽기 위해 영어 배운다는 거죠. 영어 시험이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를 통해 전달되는 스토리가 좋아서 더 많이 보고 듣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만약 시험만을 생각하고 영어를 배우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걸 알고 배움에 대해 큰 회의가 들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이 영어를 적이 아닌 친구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못할까?

“우리의 뇌는 답을 주면 생각을 멈추지만
왜? 라고 질문하면 생각을 시작한다.”

먼저 많은 분이 “왜?” 전치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죠.

전치사를 배우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치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단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치사는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선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규칙의 조합으로 보고 외워버리는 한국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거죠.

정말 우리가 전치사를 규칙으로만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죠. 아래 두 문장에서 동사 "write + "in" 또는 "on"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1. Write your name **“in”** your notebook.
2. Write your name **“on”** your notebook.

혹시 “write in”이 더 익숙하여 1번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답은 둘 다 맞다 입니다. 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죠. 화내기 전에 왜 그런지 영어 포럼에 올라온 원어민의 설명을 먼저 들어 보시죠.

daviesri
Senior Member

Houston, TX
USA English

Write it in your notebook. - Write on a page within your notebook.

Write it on your notebook. - Write on the cover of your notebook.

출처: WordReference.com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write in"의 경우 공책 페이지 "안에" 적는 것이고

"write on"의 경우 공책의 "겉표지에" 적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write 뒤에 in을 쓴다"처럼 외우기 때문에 전치사를 배우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험에선 "write 뒤에 in을 쓴다"고 외워서 풀어도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치사를 설명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예문을 소개할 겁니다.

"앉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 하나요? 아마 99%의 사람들은 “앉다”를 영어로 "sit dow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sit"만 있어도 "앉다"라는 뜻으로 "down"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죠.

중요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sit down"이 "앉다"가 아니라 "sit"만 있어도 "앉다"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Daum 사전을 캡처한 부분을 보시죠.



분명, "sit"만 있어도 "앉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왜 "sit down" 전체가 “앉다”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sit” 옆에 “down”이 없어도 되는데요.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어도 우리는 한 번도 "sit" 옆에 왜 "down"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것에 대한 의심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치사를 쓸 수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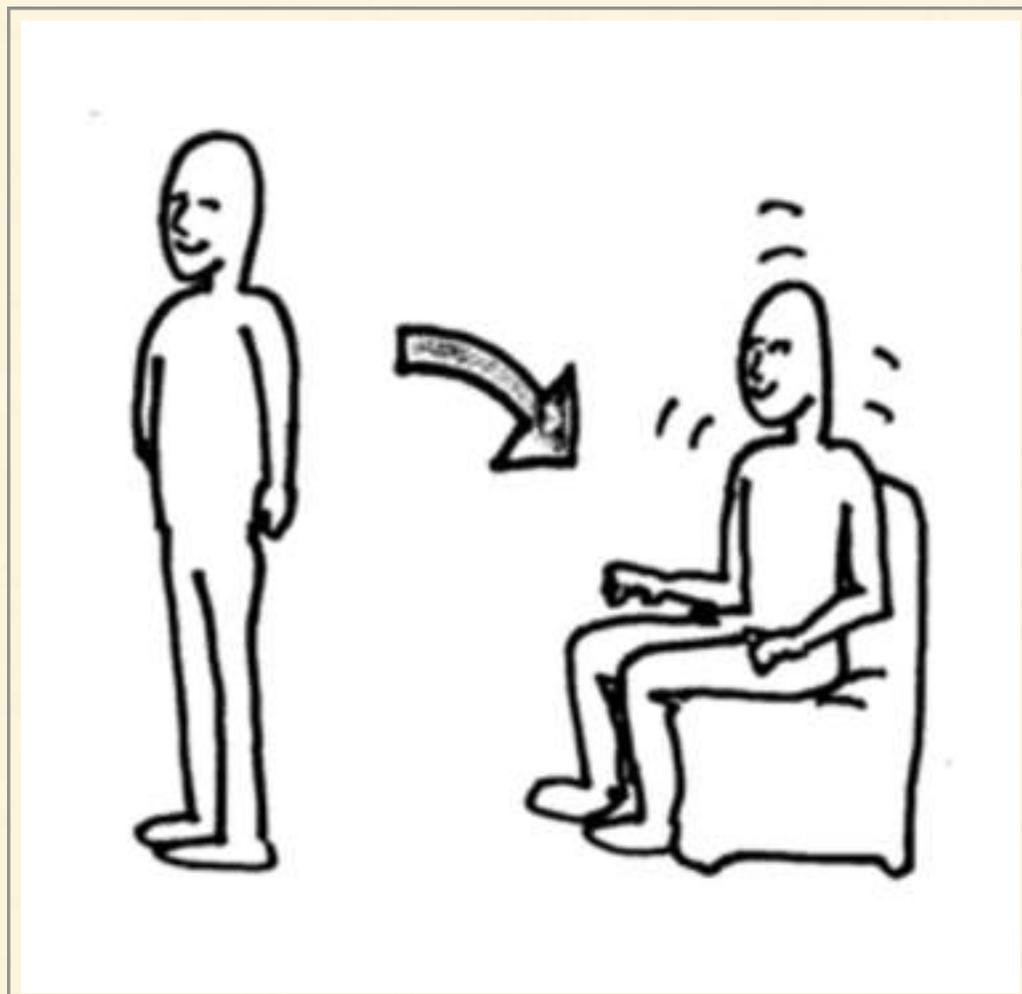
“When all think alike no one thinks very much”

-Albert Einstein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영어는 한글과 달리 의성어/의태어가 없습니다. 한글에서, "저기 가서 털썩 앉아"라는 문장에서 "털썩"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선 만들어 낼 수 없죠. 한글에선 "털썩"이란 "내려가면서 앉는다"는 "how"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선 "sit"은 "앉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어떻게" 앉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sit(동사) + down(전치사)"의 조합을 통해 앉긴 앉는데 "down: 내려가면서" 앉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즉, 전치사가 옆에서 "어떻게" 앉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래 사진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내려가면서 앉지, 올라가면서 앉는 사람도 있나?"

네,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앉긴 앉는데, "올라가면서 앉다"라는 말을 영어에선 "sit+ up"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앉긴 앉는데, 분명 상체가 "올라가면서(up)" 앉(sit)습니다. 보통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sit up"이라고 하죠. 아래 사진처럼요.



“sit up”의 모습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가 일어나 앉으며, "sitting up"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Youtoub

사실 우리는 “sit down” 전체를 “앉다”라는 뜻으로 그냥 “외워” 버렸기 때문에, “sit” 옆에 “down”이 왜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로 말할 땐 누구도 “내려가면서 앉아” 또는, “올라가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내려가면서 앉는 동작뿐 아니라, 분명 올라가면서 앉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전치사를 활용하게 되죠. 또한,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 단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사용하던 전치사를 위치만 동사 옆에 놓고 부사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영어에선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라고 하는 것보단, “내려가면서 앉아: sit down,” “올라가면서 일어나: stand up,” 또는 “슬라이딩하듯이 들어와: slide in”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죠.

“sit”에 “down” 또는 “up”이 뒤에 붙어 입체적인 설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즉, 전치사의 도움으로 마치 animation을 보듯이 말할 수 있게 되는거죠. 또한, 이 작은 전치사 하나가 영어의 중심인 동사의 “동작 과정”을 완전히 변경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전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향상되었죠.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 학생뿐 아니라 교사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구문 동사 몇개를 외우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문동사의 존재를 알리고 전치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책이죠.

여전히 전치사의 의미는 보지 않고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서 외워버리기 때문에 전치사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언젠은 운 좋으면 맞았다가 언젠은 틀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전치사는 문맥에 따라 뜻과 사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문법책에서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경험”을 통해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같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에 관해 얘기해 보죠.

“어떻게” 전치사를
이용할 것인가?

전치사를 활용하는 구문 동사를 배우는 것이 어휘력을 더 효과적으로 확장시킨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궁금 하 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어휘력”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죠.

한국에선 보통 어휘력이란 단어의 양(quantity), 즉 몇 단어를 외웠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단어의 질(quality)에 대한 논의는 잘 하지 않죠. 사실 어휘력이라는 건 단어의 "양 +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단어 - 한글 뜻"으로만 외우고 있으면 그 수가 몇천몇만 단어라도 종이 시험을 벗어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어휘가 됩니다. 그러나 단 2,000개 단어라도 고유의 소리, 색, 표정, 맛, 그리고 그 감정 등을 "입체적"으로 입력하면,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그림 그리듯이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어휘력은 몇 개의 단어를 아느냐가 아니라 "몇 개의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린 겁니다. 즉, 필수적인 양의 단어를 입체적으로 입력해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하죠.

실제로 영어에선 기본 2,000단어 수준으로 내용에 약 80%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어휘 수준에 따른 콘텐츠를 커버하는 비율을 표시하고 있죠 (Paul Nation의 저서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참조).

TABLE 1.4. VOCABULARY SIZE AND **COVERAGE** (CARROLL, DAVIES AND RICHMAN (1971))

Number of words	% text coverage
86,741	100
43,831	99
12,448	95
5,000	89.4
4,000	87.6
3,000	85.2
2,000	81.3
1,000	74.1
100	49
10	23.7

High frequency vocabulary

2000 words
80% or more text **coverage**

출처: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p.17)

그럼 어떻게 "동사 + 전치사"의 활용이 어휘력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향상할 수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를 배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정보가 있습니다. 주로 형태(철자) + 소리(발음) + 의미(뜻) 입니다. 즉, 3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최소한 그 단어를 "이해"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익히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아래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시죠.

1. 단어의 철자를 외우고
2. 해당 단어의 발음을 듣고 인지하도록 훈련하고
3. 해당 단어의 소리와 영어문자를 뜻/느낌에 연결하고
4. 이렇게 입력된 단어를 다양한 배경을 통해 사용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경우 1~3단계 과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 "turn on the light"라는 표현에서 "turn on"을 보시죠. "turn"이라는 단어와 "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urn"과 "on"의 철자나 발음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단지, 이를 조합해 "turn on"이 주는 새로운 느낌과 뜻을 다양한 배경을 통해 배우면 됩니다. 즉, 단어 사용에 대한 정보만 "경험"하면 되죠.

어휘를 배울 때 4번째 단계만 집중하면 된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선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원인을 생각해봅시다. 매일 단어 스펠링과 뜻을 외우고 듣는 지루한 1~3단계 과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는 단어를 조합해 지루한 과정을 skip 하는 거죠. 바로 4단계로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축적하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를 한번 외웠다고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기본 단어(get, make, turn, have, look... + on, in, out, of)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물론 반드시 새로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단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죠. 이미 아는 단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도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데만 집착하면 지루함에 영어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어휘력 증가를 위해 새로운 단어만 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activate, significant, abundant"부류의 단어를 매일 배운다면, 각 단어의 새로운 철자, 발음, 뜻을 모두 외우고 나서야 사용법을 배우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3배 이상 시간과 노력이 들죠.

또한, 오해하는 것이 고급 어휘를 사용하면 영어 고급자 처럼 들린다고 착각하여, 억지로 어려운 단어를 문장에 꾸겨 넣기도 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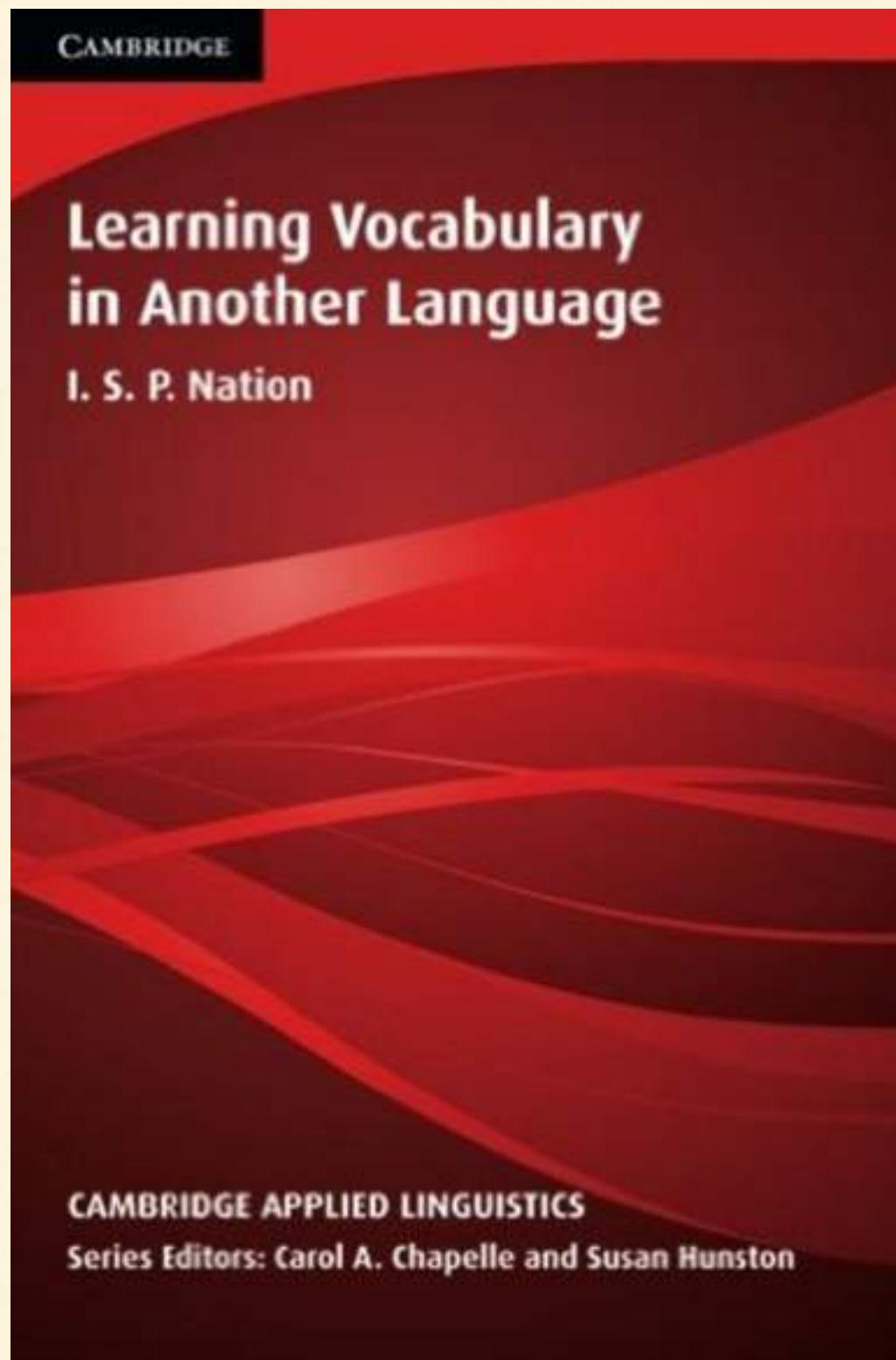
예를 들어, 앞서 보신 "turn on the light" 대신 "activate the light"라거나 "operate the light"은 매우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즉,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적으로 활용 것이 진짜 고급 자의 태도일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니고요.

고급자는 모든 수준의 어휘를 다양한 배경(context)에서 입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재미를 충분히 즐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chapter 2로 이동하여 구문 동사를 실제로 배울 겁니다. 단, 구문 동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들이 주는 재미와 혜택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소개된 어휘력에 대한 정의와 통계는 I. S. P. Nation의 저서,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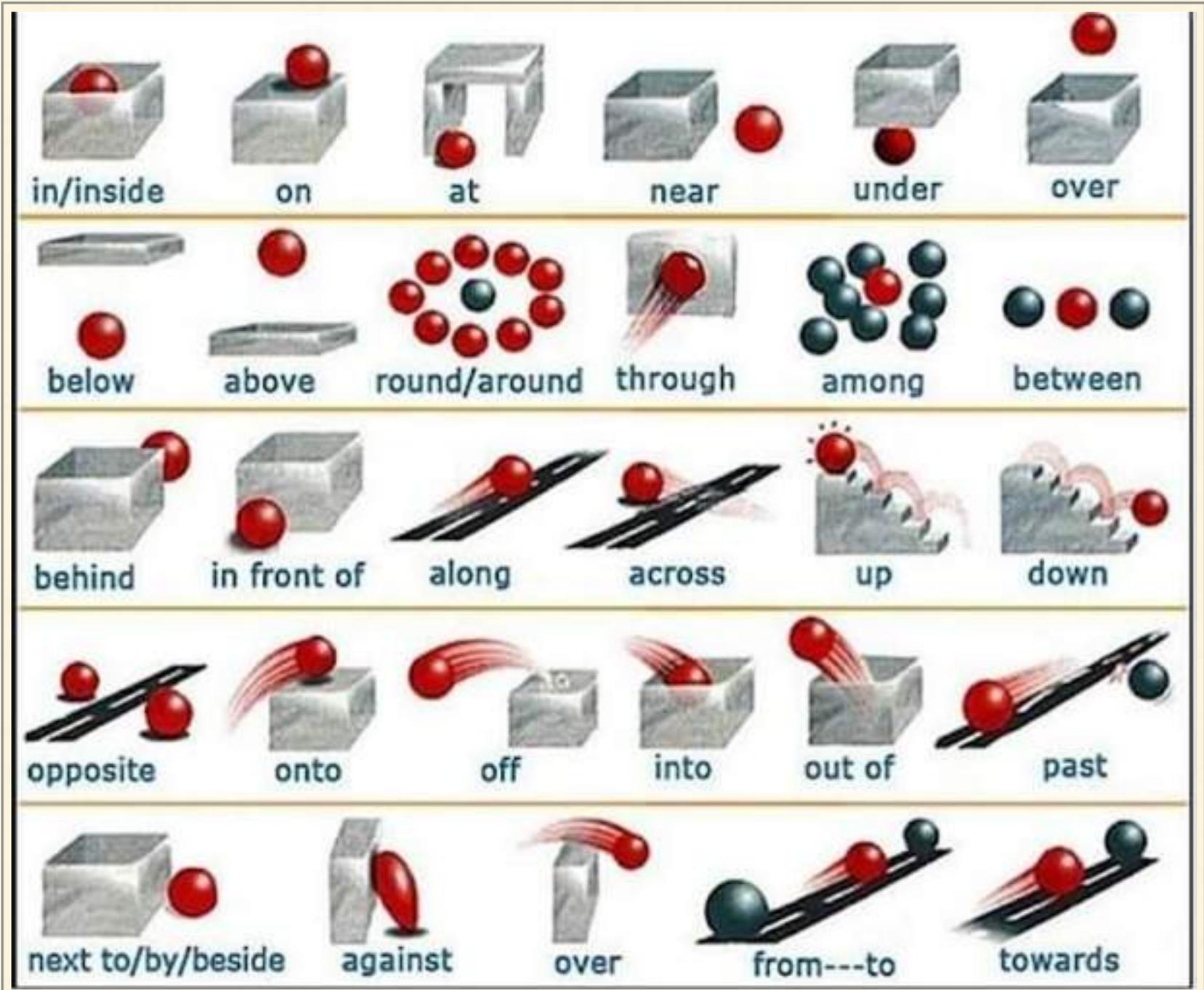


Chapter 2

<추천 학습 방법>

1. 잡지나 소설책을 읽듯이 즐겁게 보세요. 즉, 영어 공부(active learning)가 아니라 영어놀이를(inactive learning) 하듯이 보길 추천 합니다.
2. 단어들은 제공하는 영어-영어 설명을 통해 먼저 어떤 뜻일지 퀴즈처럼 유추하고 나서 한글 뜻을 확인하세요.
3. 동사의 뜻과 함께 전치사가 더 해주는 입체적인 의미에 집중해주세요. 이어지는 다양한 context와 비언어적인 정보를 연결해 주세요. 더 재밌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1~2번을 과정을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진행하셔도 됩니다. 책에 나오는 단어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본인에게 중요한 단어라면 반드시 다음에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5. 책이 보기 싫어 지면 언제든지 내려 놓으세요. 다시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보고 싶은 만큼만 보세요. 이를 통해 영어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초급자분을 위해 전치사의 느낌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전치사의 기본적인 느낌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면 아래 사진을 먼저 참고해보
 세요.



출처: <http://reallifeglobal.com>

Chapter 2에서 제공하는 단어 [INDEX]

1. GO

- go after
- go back
- go by
- go on
- go off
- go out
- go over

2. LOOK

- look after
- look around
- look back
- look down
- look up
- look out

3. DROP

- drop by
- drop out
- drop off

4. TURN

- turn around
- turn back
- turn down
- turn on / off

5. BREAK

- break down
- break out
- break up

6. DRAG

- drag down
- drag on
- drag in
- drag up

7. TAKE

- take after
- take apart
- take in
- take off
- take over
- take up

8. PUT

- put in
- put off
- put back
- put down
- put up

** 샘플 자료의 경우
각 섹션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O

S E C T I O N 1



If you don't **go after** what you want, you'll never have it. If you don't step forward, you always in the same place. Take action!

출처:FrankMedrano.com

Go after: To follow and try to stop or catch

“If you don’t **go after** what you want, you’ll never have it. If you don’t step forward, you always in the same place. Take action!”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행동하라!”

“Go”라는 단어는 가는 동작만을 의미하고 어디를 어떻게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여기에 “after”가 주는 “~이후/ ~ 뒤로”라는 “how”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가긴 가는데, “뒤따라가거나, 추격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추상적인(abstract) 뜻으로 목표를 따라가면 목표를 추구해 가는 것이고, 구체적인(concrete) 의미로 범인을 따라가면 물리적으로 추격해 가는 모습이 연상되고 느껴져야 합니다.

- ~를 추구하다
- ~를 따라가다/ 추격하다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 아래 기사의 의미를 확인해 보죠.

CVS라는 미국 대형 체인마트에서 이전에 일하던 “위장 직원들”(undercover workers 고객인 척 하고 있는 직원)이 CVS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명목은 주로 흑인과 남미 사람들(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여)을 **쫓아가서 (go after)** 잡으라는 요청으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ive employees filed lawsuits against CVS Pharmacy on Monday, accusing their managers of racial profiling and discrimination.



Ex-Undercover CVS Workers Claim They Were Told To Go After Blacks And Latinos

The former employees filed lawsuits this week claiming they were told to racially...

BUZZFEED.COM | BY EMA O'CONNOR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한 극단주의자 집단을 추격하겠다(**go after**) 선언했는데요. 동시에 범죄자들이 무기를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법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CNN 기사입니다.

**CNN Politics** 
Yesterday at 2:30am · 



While President Obama vows to **go after** extremist groups that have called for attacks on Americans, he also renews what has now been a years-long push for laws making it harder for criminals to obtain firearms.



Obama escalates call for gun control

WWW.CNN.COM | BY KEVIN LIPTAK, CNN WHITE HOUSE PRODUCER

Paypal 창업자 중 한 명이며, Zero-to-One의 저자인 Peter Thiel의 강연입니다. 작은 시장에서 큰 회사가 되는 것이 경쟁이 심한 큰 시장에서 작은 회사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선 창업자 대부분은 너무 큰 시장만을 보고 **쫓아가는(go after)**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people make is
to **go after** really big markets.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따라가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Don't let another day **go by** without these cream puffs in your life!

출처: COOKTV.com

Go by:

To Pass someone or something

To pay a short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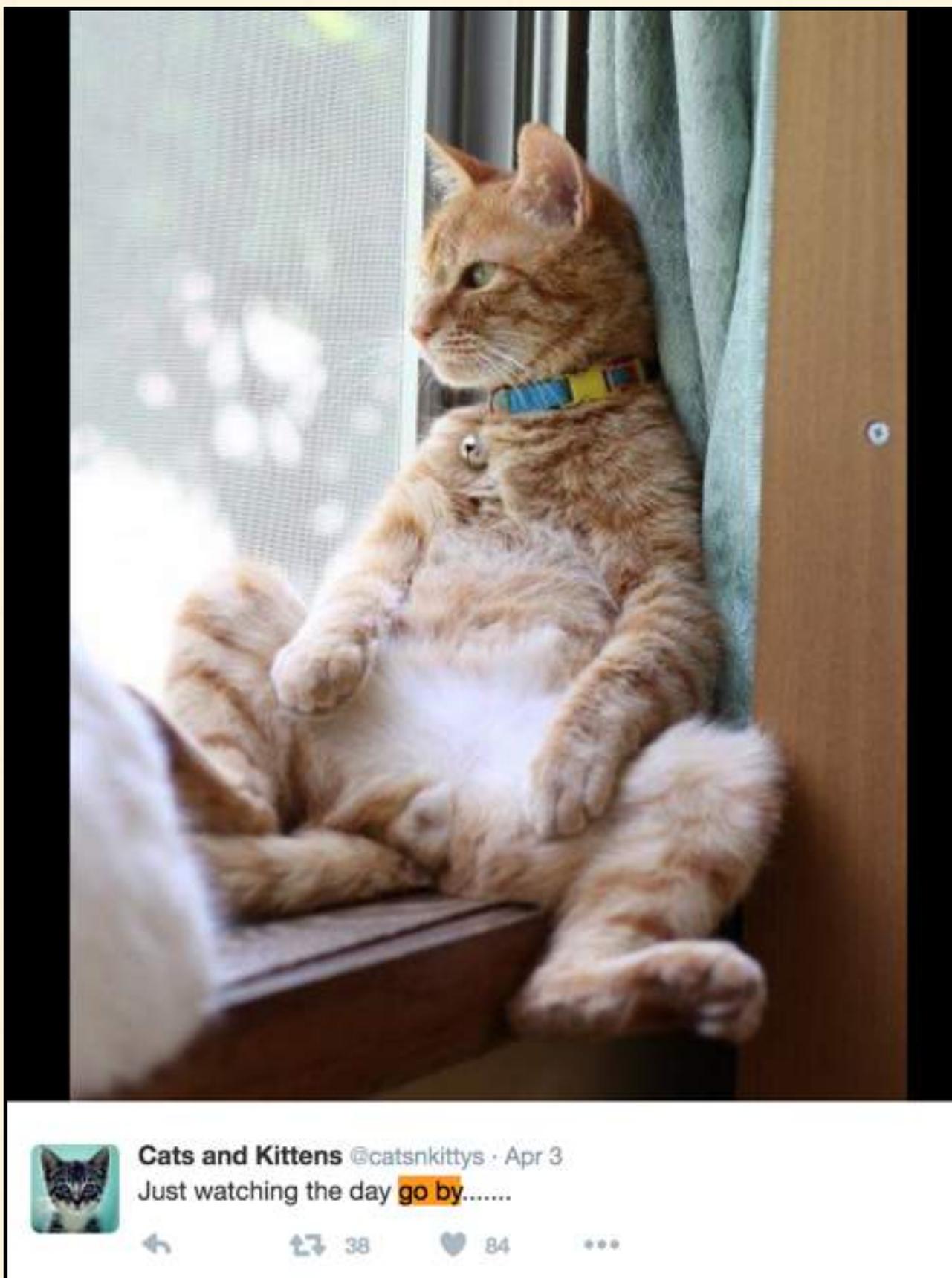
“Don't let another day **go by** without these cream puffs in your life!”

“당신 삶의 하루를 여기 크림 버프(슈크림)도 없이 또 그냥 지나쳐 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by”의 느낌이 “go”에 추가된 것으로 살짝 “곁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사람을 못 본체 지나가다”라는 뜻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세월이 쓱~ 흘러가는 느낌”을 “go + by”가 주게 되죠.

- 옆을 쓱~ 스쳐/ 지나쳐 가다
- (시간이) 흘러가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한글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느낌을 습득하는 겁니다. 아래 사진은 “go by”에 담긴 감정 “**정처 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느낌”을 고양이 친구가 잘 담아내고 있죠. 딱 저 고양이의 자세와 느낌을 “go by”와 함께 담아 가셔야 합니다.



The Time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가수로 Taylor Swift를 뽑았습니다. 올해는(2016년) 전설적인 가수 The Rolling Stones와 Chicago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The Rolling Stones가 리메이크해 큰 인기를 얻은 곡, “As Tears Go by”도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직접 들어 보시죠.



The Rolling Stones & Taylor Swift - As Tears Go By - Live in Chicago

The Rolling Stones and Taylor Swift performing 'As Tears Go By', one of the first songs written by Jagger/ Richards, at the United Center in Chicago on June ...

YOUTUBE.COM

노래에 사용된 가사, “go by”가 “씩 흘러보내다”의 느낌을 잘 전달 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가사도 해석해 볼 겁니다.



출처: *Youtube.com*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children sing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ground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은 잊은 채 흘러보낸 시간을 후회하는 나이 든 자신의 허망한 모습을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의 뜻을 보니 더 슬프네요.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children sing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ground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제가 가진 부와 명예로는 모든 걸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그냥 떨어지는 빗소리뿐이네요.

저는 그저 앉아서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보고만 있죠, 눈물을 흘리며

**전체 영상 보기 링크:

www.youtube.com/watch?v=O52TbIbCEKo#t=40

샘플 자료는 지금 보시는 section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OOK

S E C T I O N 2



“My grandchildren are everything to me.” Lidia **looks after** her grandchildren. She worries about their future and what will happen if she gets too old and frail to **look after** them.

출처:Unicef

Look after: To take care of someone or something

To be responsible for something

“My grandchildren are everything to me.” Lidia **looks after** her grandchildren. She worries about their future and what will happen if she gets too old and frail to **look after** them.”

“제 손자들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Linda는 그녀의 손자들을 돌보죠. 그녀는 손자들의 앞날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늙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Look”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 중에 “보다”라는 의미와 “after”가 주는 “~뒤에 (서), ~한 후에”의 느낌이 합쳐져서 “뒤를 봐주는”, 즉 “누군가를 돌보다, 바라보다, 배웅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 ~를 돌보다, 바라보다
- ~를 배웅하다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영어 제목에 look after
를 사용, "돌봐달라"는
의미를 전달 함

출처: <http://www.goodreads.com/book/show/8574333-please-look-after-mom>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도 “look after”로 “돌보다”라는 뜻을 줄 수 있
죠. 아래 광고 문구를 보시죠.

“Curls are back - and is how to **look after** them.”

“곱슬(머리/거림), 여기 곱슬머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urls are back - and this is how to look after them



11 Of The Best Curly Hair Products

The best curly hair products are often hard to discover, but love them or loathe them, your curls need some extra care if they're to look their best. We've got the lowdown on butters, styling creams,...

MARIECLAIRE.CO.UK

구글에서 진행한 벅컴, David Beckham,의 강연 영상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살다가 결혼하여 3명의 아이를 얻게 되었고 “그들을 **돌보는(look after)**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Talks at Google*

we've got three amazing boys now and a little
girl that we have to **look after**, ~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돌봐야** 할 너무나 멋진 아들과 딸을 갖게 됐어요. ~”



Don't look down!

This mountain climber carefully maneuvers a bridge suspended 300 ft in the air on Mt. Everest.

Look down: To be in a position that affords a downward view

To regard with contempt

“**Don't look down!** This mountain climber carefully maneuvers a bridge suspended 300 ft in the air on Mt. Everest.”

“**내려다보지 마세요!** 여기 산악인이 에버레스트 산, 300ft에 걸쳐진 다리 위를 매우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Look” + “down”의 구체적인(concrete) 뜻은 고개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의미는 “사람/사물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남을 깔보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되죠.

또한, 자신이 혼자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뭔가 “의기소침한” 경우나 안 좋은 일로 “실망스러운 모습”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래를 내려다보다
- 업신여기듯이 깔보다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에 “Look Down”이라는 노래에선 “down”이 어떻게 “look”의 느낌 보충해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출처: Youtube.com

Look down, look down

Don't look 'em in the eye

Look down, look down

You're here until you die

Look down, look down

Don't look them in the eye

Look down, look down

You're here until you die

눈은 아래로 깔고, 눈은 아래로 깔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봐선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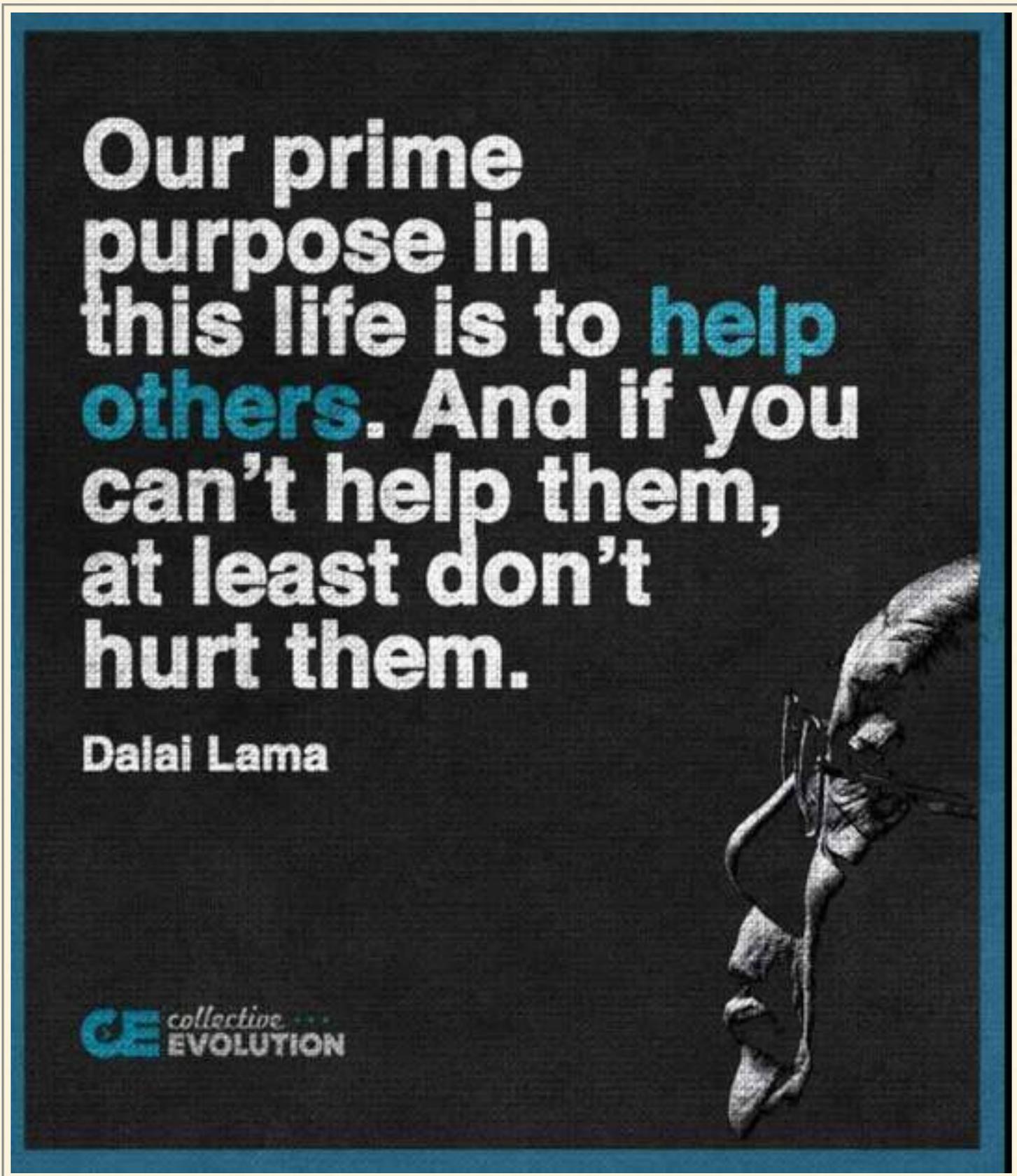
눈은 아래로 깔고, 눈은 아래로 깔고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야만 해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간부를 똑바로 바라봐서는 안 되죠. 자신의 신분에 맞게 눈을 아래로 깔고 죽은 듯이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노래에서 표현하기 위해 “look down”을 사용하고 있죠.

**전체 영상 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6jp_MKI_6w



출처: *Collective Evolution*

“Never **look down** on anybody unless you are helping them up.”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

- 달라이 라마 -

look down





Look up!

출처: David Borenaz

Look up: To search for something
 To cheer up

“Look up!”

“위를 봐! (힘내!)”

앞서 배운 “look down”은 “아래를 보고/ 남을 깔보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이라면, “look up”은 반대의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위”라는 것은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look up”의 의미가 “cheer up”의 뜻으로 전달 되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의미론 다른 사람을 올려다본다고 하여, “존경하다”라는 뜻이 되죠.

또한, 전치사 “up”은 “올라가는” 의미 뿐 아니라 앞에 오는 동사의 동작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는” 동작을 “up”이 강조해서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찾아보다 라는 뜻을 만들죠.

- 위를 보다, 우러러보다(남을 존경하다),
- 정보를 찾다.



사진처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작,
“look up”이죠.

사람을 올려다본다는 건 존경한다(**look up**)는 뜻이 될 수 있죠.

“9 reasons we **look up** to Frank Reagan.”

“우리가 Frank Reagan을 존경하는 9가지 이유”

He's a true hero.



9 Reasons We **Look Up** To Frank Reagan

CBS.COM

사전에서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봤다고(look up) 하는 내용입니다.
뜻이 너무 현실적이라 당황스럽네요.

If you look up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being my friend i won't lie, this may be part of it. ~The-Fireplace-Ron



“If you **look up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being my friend I won't lie, this may be a part of it.”

“당신이 만약 친구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부분적으로 맞을 겁니다.”

*사전 정의: “True friends don't judge each other, they judge other people together.”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같이 욕하는 것이다.”

2005년 Harvard computer science 수업에 초청된 Mark Zuckerberg 강연입니다. Facebook의 기능은 “사람을 찾아(**look up**)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Harvard Uni, CS50*

I think that Facebook is a directory, and the primary purpose is to **look up** someone. Right? Like type in their name and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m.

I think that Facebook is a directory, and the primary purpose is to **look up** someone. Right? Like type in their name and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m.

“제 생각에 Facebook은 하나의 디렉토리이고 주요 목적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들의 이름을 타이핑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 거요.”

**전체 영상 보기 링크:

www.youtube.com/watch?v=xFFs9UgOAIE&list=WL&index=77

DROP

SECTION 3



Look Who Decided to **drop by**
in the new trailer for Captain
America: 'Civil War'

출처: [Mensfitness.com](https://www.mensfitness.com)

Drop by: To visit casually or unexpectedly

“Look Who Decided to **drop by** in the new trailer for Captain America: ‘Civil War’!”

“Captain America: ‘Civil War의 새 트레일러에 누가 **들렀나** 보세요!”

“Drop”이라는 단어는 “떨구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by”가 붙어 “옆에서/으로 (스쳐 지나가듯이)”라는 느낌이 추가된 거죠. 주로 “계획 없이” casually visit 한다고 하여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잠시 스치듯이 들르다”라는 느낌을 전달하죠.

- 잠시 들르다 (스쳐 지나가다)

미국에서 “drop by = drop in”은 보통 혼용됩니다. 단지 “in”이 주는 차이는 스쳐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잠깐 “실제로 들어갔다” 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테이크 아웃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가는 것은 “drop by”이고 레스토랑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는 것은 “drop in”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기숙사에서 지나가다가 잠시 문만 열고, “안녕”하고 바로 가는 것은 “drop by,” 실제로 문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수다 떨다 가면 “drop in” 느낌이죠.

아래는 제가 앞서 설명한 drop “by” 와 drop “in”에서 전치사가 주는 미묘한 차이를 원어민이 설명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There is a very slight sense, I would say, that "by" is less "demanding socially". Say you have been dating someone only once or twice. You might say "drop by my house" .. you're merely "coming by", "saying hello while passing". Drop "in" to my house is more commitment, you're literally coming physically in, it's going to be a longer visit; so for example "come by for a coffee" versus "come in for dinner"

참조: <http://english.stackexchange.com/a/242794>



출처: N-Gram/ Google

이번에는 사용 빈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잠시 들르다”라는 뜻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으로, “drop by”뿐 아니라, “come by,” “stop by” 등이 있죠. 위에 통계가 보여 주듯이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drop by”의 사용 빈도가 다른 두 가지 표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drop by”를 더 자주 사용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by”의 느낌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표현 중에 “side by sid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y”의 “스치듯이”와 “side”의 “옆면으로” 느낌이 합쳐져 아래 사진과 같이 나란히 옆에 놓여 있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죠.

In pictures: Comparing Windows Phone 8.1 and Windows 10 Mobile, **side by side** | @scoopit sco.lt/7fFvW5



만약, “서 있다”의 “stand”와 “by”가 함께 사용되면, “옆에서 있다/ 함께 나란히 서 있다”는 뜻이 되죠. 우리가 “stand by”라는 표현은 노래 가사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서 영상을 보며 확인해보죠.

영상은 길거리 가수가 부르는 Ben E. King의 노래 “Stand by me”와 Rachel Platten의 노래 “Stand By You”입니다. 노래 가사에서 “by”가 쓰이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는 “by”를 통해 규칙의 나열이 아닌 “애절하게 옆에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느껴질 겁니다.



출처: Rachel Platten - Stand By You
Ben E King - Stand by Me

Michelin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간다고(drop by)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식당을 평가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몰래, 계획 없이” 한국 식당에 갑자기 들를 겁니다. 그럼 “drop by”가 그 느낌을 잘 전달하겠죠.

“Michelin to **drop by** and rate restaurants in Seoul next year.”

“Michelin이 내년에는 서울에 들려서 레스토랑 순위를 매길 겁니다.”



Michelin to **drop by** and rate restaurants in Seoul next year - Pulse by Mael Business News Korea

Restaurants and diners in Seoul gear up for visits by famously anonymous inspectors to draw up the first Red Guide publication on Seoul by tire-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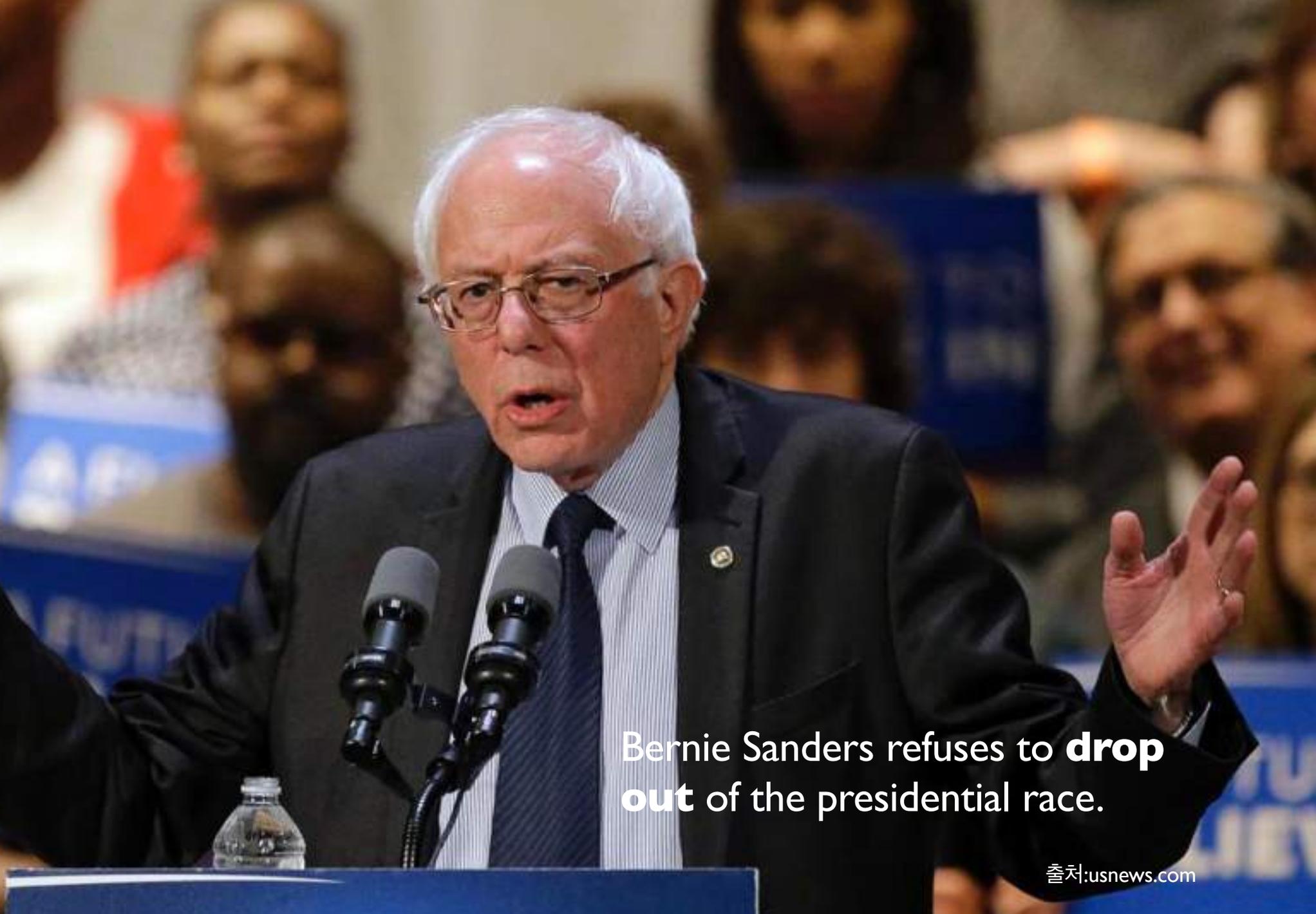
M.PULSENEWS.CO.KR

Google에서 진행된 David Beckham Interview입니다. 사회자가 벅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가 오늘 Google에 **들려(drop by)**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흥분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처: *Talks at Google*

I have to say, when David called us and asked us
if he could **drop by** today, ~



Bernie Sanders refuses to **drop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출처:usnews.com

Drop out: To leave an activity, school, or competition before you have finished

“Bernie Sanders refuses to **drop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Bernie Sanders가 대통령 선거 경쟁을 (완주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둘 거라는 말에 대해 부인했다.”

“Drop”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떨어지거나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out”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버리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속해 있던 상황, 단체, 경쟁에서 자신이 하던 일,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 하던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우리가 가장 많이 “drop out”을 만나게 될 상황은 사실 학교를 그만둔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역시 “out”이라는 단어를 통해 속해 있던 사회단체, 시스템에서 다 끝내지 않고 “나가는, 그만두는” 모습이 연상되죠.



출처: CNNMONEY

“Economic despair spurs low-income boys to
drop out of high school.”

“경제적인 불평등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의 고등학교를
그만두도록 가속시키고있다.”

Malcolm Gladwell의 Zeitgeist Americas 2013 강연에서 미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과학이나 수학 관련 학위를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drop out)**한다고 말합니다.



출처: *Zeitgeist Americas 2013*

Lots and lots and lots of high school seniors want to get science and math degrees, but approximately half of them **drop out** by the end of their second year. So we have a persistence problem in science and math education in this country.

Lots and lots and lots of high school seniors want to get science and math degrees, but approximately half of them **drop out** by the end of their second year. So we have a persistence problem in science and math education in this country.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과학이나 수학 쪽 학위를 원하지만, 약 반 정도는 2년 차에 학교를 그만두죠. 그래서 이 나라에선 계속 과학과 수학 교육에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원본 영상 전체 보기 링크:

www.youtube.com/watch?v=3UEwbRWFZVc

샘플 자료는 지금 보시는 section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추천 학습 방법>

1. Chapter 2에서 배운 표현에 집중해서 아마존 베스트 셀러를 읽어 보세요.
2. 각 지문에 나온 구문 동사들은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뜻이나 느낌을 모르는 경우는 해당 단어를 클릭하여 뜻과 느낌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
3. “뜻과 느낌”을 완전히 장착하고 해당 지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한글 뜻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가 주는 감정이, 색이, 그리고 맛이 느껴지면 제대로 이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4. 소개되는 모든 책에 대한 난이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책을 선택하여 즐거움을 동반한 리딩도 진행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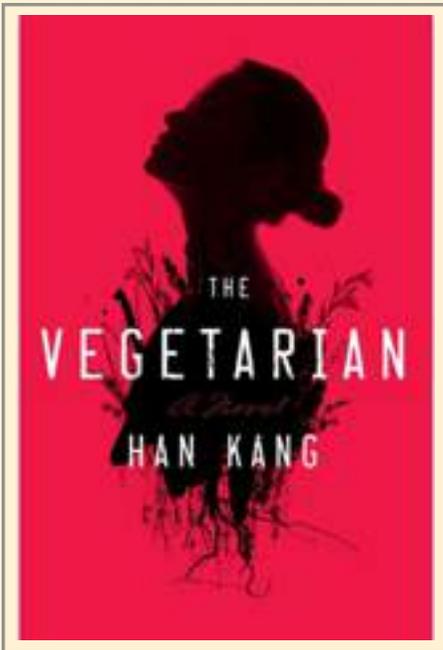
**참고

Chapter 3은 APPLYING LV 1과 Lv 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Lv 2에서 다루는 책의 수준이 Lv 1 보다 더 높습니다.

APPLYING

Lv 1

한강 작가님의 소설, “The Vegetarian”입니다. 야근하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이를 보육소에서 데려와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도 바빠서 못한다고 하죠. 결국, 부인은 다른 집 여성에게 **돌봐달라고(look after)** 부탁한다고 하며 통화가 끝나죠. 통화에서 무료하고 지긋지긋한 일상이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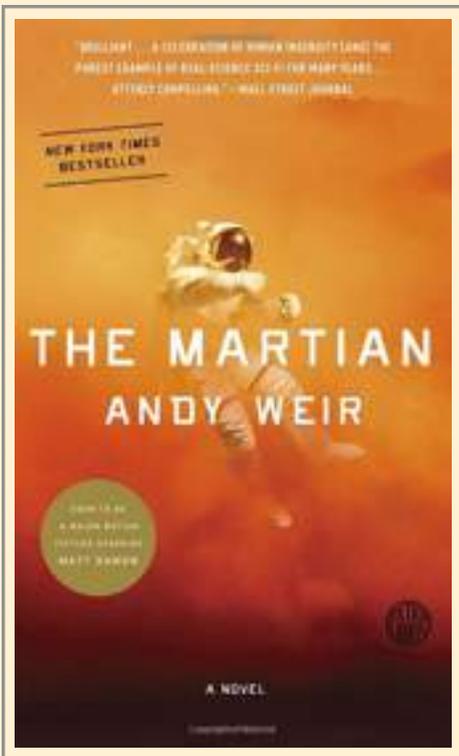
출처: Amazon.com

His mobile rang, and he kept walking while he answered the call. “It’s me.” His wife. “It looks like I’m going to be late finishing today. And the babysitter’s got a flat tire. You’ll have to pick Ji-woo up from the nursery at seven.” “I can’t,” he answered shortly. “I can do nine at the earliest.” He heard his wife sigh. “All right. I’ll ask the woman in 709 to look after him until nine.” They hung up without any unnecessary small talk. That was the kind of relationship they had these days-~

Excerpt From: Han Kang. “The Vegetarian: A Novel.”

“The Vegetarian”의 난이도: 7.3 /12
(미국 중학교 3학년 -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영어수준)

Andy Weir의 소설 “The Martian”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여기선 화성에 좌초된 후 주인공이 초기에 어떻게 물과 토양을 모아 작물을 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화성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폭풍이 한 시간 동안 들렀다 갔다는(**dropped by**) 부분을 확인하시죠.



출처: *Amazon.com*

LOG ENTRY: SOL 26

It was a backbreaking yet productive day. I was sick of thinking, so instead of trying to figure out where I'll get 250 liters of water, I did some manual labor. I need to get a whole assload more soil into the Hab(서식지/시설물), even if it is dry and useless right now.

I got a cubic meter in before getting exhausted. Then, a minor dust storm dropped by for an hour and covered the solar collectors with crap. ~

Excerpt From: Weir, Andy. “The Martian: A No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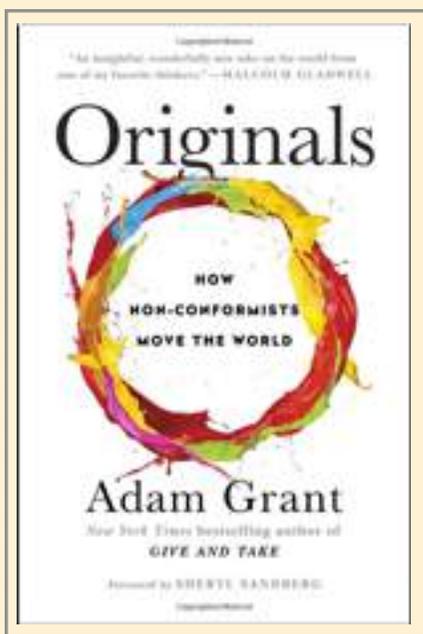
“The Martian”의 난이도: 5.4 /12

(미국 중학교 1학년 - 한국 중학교 3학년 영어수준)

APPLYING

Lv 2

Adam Grant의 저서, “Originals”입니다. Bridgewater라는 회사는 직원들의 의견은 소중하지만, 모든 의견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야구선수의 경기력 통계와 비슷하게 직원의 능력을 기록하고 능력에 따라 의견이 갖는 가치를 다르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능력은 마치 야구카드처럼 공개해 누구나 “**찾아볼 수(look up)**” 있다고 하네요.



출처: Amazon.com

Although everyone’s opinions are welcome, they’re not all valued equally. Bridgewater is not a democracy. Voting privileges the majority, when the minority might have a better opinion. “Democratic decision making—one person, one vote—is dumb,” Dalio explains, “because not everybody has the same believ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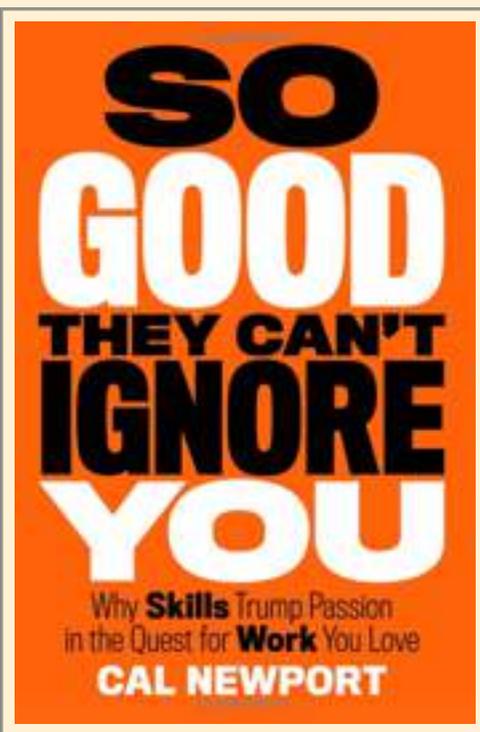
At Bridgewater, every employee has a believability score on a range of dimensions. In sports, statistics for every player’s performance history are public. In baseball, before you sign a player, you can look up his batting average, home runs, and steals; assess his strengths and weaknesses,

Excerpt From: Grant, Adam. “Originals: How Non-Conformists Move the World.”

“Originals”의 난이도: 10.5 /12

(미국 고등학교 2학년 - 한국 대학교 1학년 영어수준)

Cal Newport라는 MIT 학생이 박사 시절 쓴 저서, “So Good They Can't Ignore You”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서 생각은 작고 짧게, 행동은 크고 길게 하되 광기에 가까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미션을 **쫓으라는/ 추구하라는(go after)** 조언을 합니다.



출처: Amazon.com

“Think Small, Act Big.” It’s in this understanding of career capital and its role in mission that we get our explanation for this title. Advancing to the cutting edge in a field is an act of “small” thinking, requiring you to focus on a narrow collection of subjects for a potentially long time. Once you get to the cutting edge, however, and discover a mission in the adjacent possible, you must go after it with zeal: a “big” action.”

Excerpt From: Newport, Cal. “So Good They Can’t Ignore You: Why Skills Trump Passion in the Quest for Work You Love.”

“So Good They Can't Ignore You”의 난이도: 9.2 /12
(미국 고등학교 1학년 -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영어수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라

-마크 저커버그

iBook 구입 페이지 링크:

[http://selz.co/4kMe2O-w\\$](http://selz.co/4kMe2O-w$)

PDF 구입 페이지 링크:

<http://selz.co/EyLXHKuwW>

또는

“전치사의 아름다움”으로 검색

해당 서적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세요

NY2KOR@gmail.com

새로운 영어 공부 방법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확인하세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블로그

<https://brunch.co.kr/@dohyunkim>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LivelongLearning/videos